

# 따뜻한이끼 희망을

www.womenfund.or.kr 2013.5호



**특집** 다문화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기

**나눔과 공감** 부산 무지개쌈의 재기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 다들 물어봐 노의방울

2013. 5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http://www.facebook.com/kwomenfund)  
트 위 터 [twitter.com/womenfund](http://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http://happylog.naver.com/womenfund.do)

## 발행 및 편집 조형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3년 9월 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일탈기획 070-4404-8447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가치로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비영리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 C O N T E N T S

03 사립문 마을에서 온 훈훈한 소식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특집 - 다문화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기

- 05 엄마의 고향, 따뜻한 사랑을 품고 돌아온 베트남 외가방문
- 07 다음에 또 외갓집에 가고 싶어요
- 08 멘토링,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

### 니눔과 공감

- 10 부산 무지개쌈의 재기  
암을 이겨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강미경씨
- 12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행복한 오늘을 사는 민용자씨의 기부이야기

###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 15 희망의 등대, 박영숙 선생님을 기리며  
이선종 교무 / 은덕문화원 원장

### 소식

- 16 재정보고
- 18 후원현황
- 20 재단소식

### COVER STORY Leaves Story

기명진, print collage on paper, 37×64cm, 2011  
작가 기명진은 판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잎맥만 남겨진 보리수 이파리들에 형형색색의 칼라를 입혀 붙여냈다. 크기와 색들이 각기 다른 잎들이 겹쳐져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형상화되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잎들이 화려한 색을 입고 어우러져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듯 신비롭다.



## 마을에서 온 훈훈한 소식

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에 인사드리고 두 달이 지났을 뿐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간 느낌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청명한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가을비가 더 없이 반갑습니다.

금년에 재단이 지원하는 <안전안심 우리동네>사업의 현장 풍경으로 이번 사립문을 엮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장난감도서관 겸 키즈카페가 있다. 거기 가면 초등생 또래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엄마 따라 나와 장난감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늘 몇 명은 있다. 엄마 선생님이나 자원봉사 형, 언니들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간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며 숙제를 봐주기도 한다. 이 동네엔 “나 홀로” 어린이가 없다.

고마들이 엄마 손을 잡고 노인정에 나들이를 간다. 고사리 손으로 점심식사 나르는 일을 돕고 어르신들과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할아버지들은 가끔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가르쳐주시고 놀이감 만드는 방법도 알려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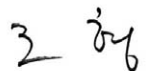
아파트 동네 부모들 1,000여명이 어린이날 동네 행사 준비에 참여한다. 여기는 “인사하는 마을.” 이웃과 서로 인사하며 지내기를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아이들에게 안전망이라는 최대의 선물이 만들어진다.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고 돈을 인생의 가치이자 신념으로 삼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점점 사라지거나 퇴화하고, 가족과 이웃 간의 배려와 온정에 기초한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쟁과 질서, 무시와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도시권 농촌에서건, 안전하고 살기 편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훈훈함이 배인 그런 동네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그런 마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직접 나선 곳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남녀노소가 서로 보살피는 일을 시작한 부산, 구리, 대구의 여성들을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우리 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살기 좋은 지속가능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여성재단을 항상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재단 가족 여러분, 풍성한 가을맞이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W**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다문화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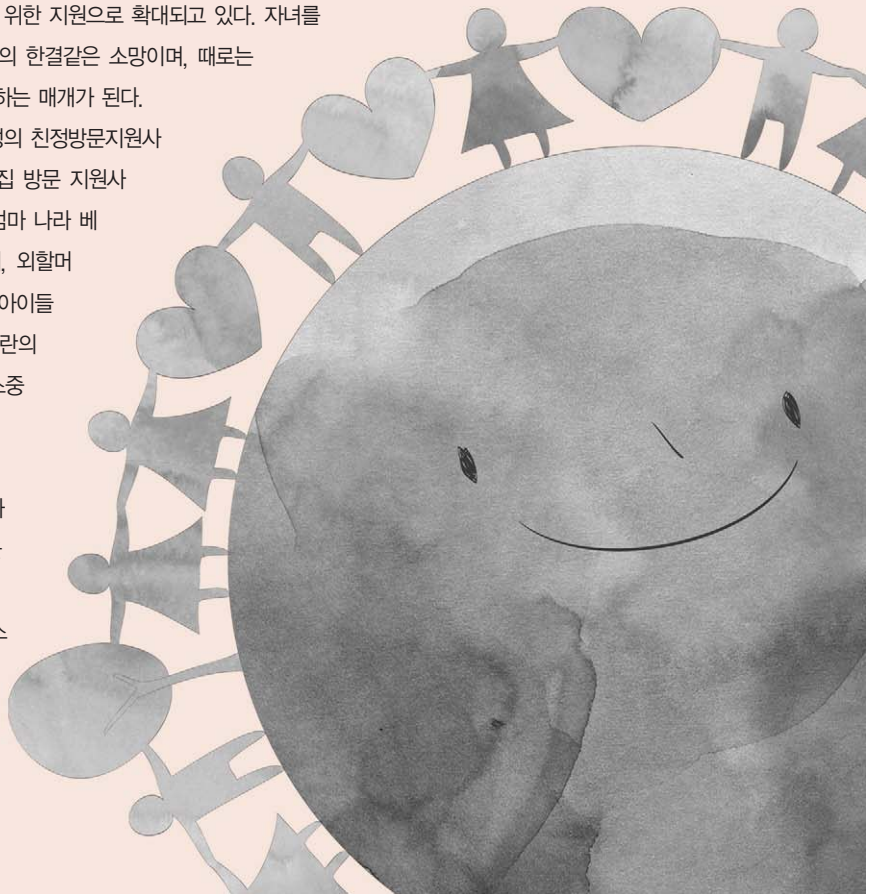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다문화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새삼스레 얘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초기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 적응지원에서 점차 2세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때로는 다문화부부의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매개가 된다.

2007년에 시작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지원사업>이 올해 <다문화아동의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엄마 나라 베트남에서 처음 만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의 기억은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자아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거뜰히 넘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 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다문화가정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진정한 다문화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과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엄마의 고향, 따뜻한 사랑을 품고 돌아온 베트남 외가방문

홍용희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교육적 배려가 담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외가방문 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2013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하 외가방문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속해왔으나, 그 초점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낯선 엄마의 나라에 함께 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린이들의 외가 식구들과의 만남은 유사했겠으나, 베트남 문화 체험의 내용과 수준은 부모에 따라 저마다 달랐을 것이다. 이제라도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나는 어린이들의 외가방문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엄마의 고향, 베트남의 친척들과 따뜻한 가족의 정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의

나라 베트남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며 자긍심을 갖게 하고 싶었다. 엄마·아빠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자기 삶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꾸려가, 장차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었다.

그렇다면 엄마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엄마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부모님께 손자·손녀를 보여드리고 싶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엄마의 어릴 적 놀이(말 타기, 곤충 찾기, 오토바이 타기 등)를 하며 엄마가 나고 자란 시골 바닷가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다’ 등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게 해주고 가족들과 친해지기를 바란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베트남어를 듣게 해주고, 베트남 문화(음식, 과일, 시장, 학교, 생활하는 모습 등), 유명한 곳을 보여주며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통해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답도 있었다.

## 엄마와 외가 식구, 그리고 베트남을 사랑하고 더 관심 가져주기를 소망

자녀들이 베트남에 다녀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지 엄마들에게 물었다. “엄마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 엄마의 가족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외가 식구들과 친밀감, 유대감을 갖는 것, 그리고 엄마를 더 많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엄마들은 자신들이 자라온 환경을 자녀들이 이해함으로써 더 친해지기를,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해지기를 바랐다.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말할 줄 알고 엄마의 고향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엄마들의 희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다. 7월 27~28일, 9월 본격적인 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참가 가족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사전모임을 가졌다. 함께 여행하게 될 스물다섯 가족이 서로를 소개하고 가족사진을 찍으며 얼굴을 익혔다. 또한 베트남어, 전래동화, 자연환경과 의식주생활 등 우리가 찾아가갈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다. 베트남 가족들의 이야기, 외조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생각하며 어린이들은 외갓집을 방문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설렘어했다.


## 말은 달라도 몸짓으로 소통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지난 9월 7일~15일 7박 9일의 여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왔다. 어린이들은 베트남에서 지내는 동안 친구를 사귀었다고 자랑했다. 베트남 친구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다 외워서 재미있게 놀았단다. 또한 몸짓으로 뜻이 통했다면서 밥 먹을 때와 잘 때, 힘내라고 할 때 사용했던 동작들을 보여주며 의기양양했다.

## 어린이들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희망 사항

“둘째 삼촌은 해파리 잡고, 민정이와 수빈이는 성을 쌓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돛자리에 앉아 있었어요.(신수민, 8세, 여아)”, “할아버지랑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비싼 장난감 세 개를 사주셨어요.(전재용, 8세, 남아)”, “저는 하롱 베이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검은색 돛이 있었어요. 배에서 사진 찍고 놀았어요. 베트남은 비오고 해 나오고 그렇게 반복하나 봐요.(김현목, 9세, 남아)”라며 베트남에서 보낸 행복한 시간을 추억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으로는, ‘맛있는 거 실컷 먹기, 맛있는 거 봉지에 싸가기, 초록바나나·코코넛 가져가기, 바나나나무 통째로 뽑아가기!’ 솔직한 대답들에 모두가 공감하는지 어린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어린이들이 이 행복했던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바란다.

## 2013 다문화아동 외가방문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만남

사전모임이나 현지 프로그램에서의 어린이들의 반응, 참여도를 평가해볼 때 2013 다문화아동 외가방문사업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베트남에서 어린이들은 진지한 호기심을 보였고, 즐거워하며 방실방실 웃었고, 베트남을 떠날 때는 모두가 아쉬워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묻는 엄마들에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들은 다시 만나야 한다. 이 사업의 목표는 부모와 어린이들과의 지속적 만남과 교류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을 다녀온 후 어린이들의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자못 궁금하다. <2013 다문화아동 외가방문사업>이 그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아, 타 국적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다음에 또 외갓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 형성에  
씨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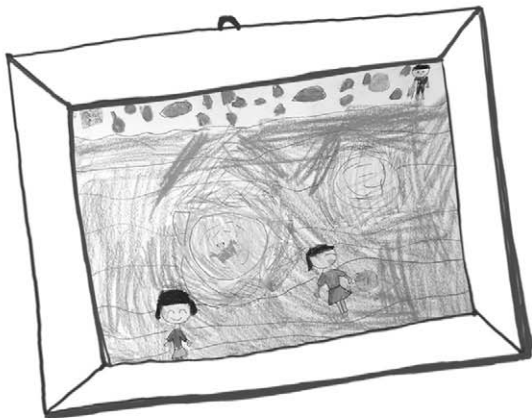
나영이, 이예린, 김혜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엄마의 고향나라 베트남을 여행했다. 어린이들은 9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면서 엄마가 살던 곳에 대해 잘 이해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는 면에서 낯설어하기보다는 문화적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며 즐겁게 보냈다.

외갓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어린이들은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하지만 곧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따뜻한 환대에 마음을 열고 외가 식구들과 잘 어울렸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준비한 현지 음식도 맛있게 먹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촌 형제들과 쉽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혜경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섯 살 사촌동생을 만나서 좋았어요”라고 회상했다. 충일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물고기 잡았어요. 외할아버지가 네 마리나 잡아주셨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효원이는 “오토바이 탄 게 재밌었어요. 외숙모가 운전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오토바이 운전 잘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들이 엄마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베트남 외가 방문은 어린이들이 엄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돈독히 하고, 엄마와의 유대감을 쌓아나가는데 중요한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엄마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외가 방문 기회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갈 때 어린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또 베트남에 오고 싶어요!”라며 환하게 웃던 어린이들의 표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W**



## 멘토링,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LG이노텍의 <희망멘토링사업>이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특히 안산이주민센터와 LG이노텍이 함께하는 멘토-멘티활동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천기와 어머니 도옥매씨, 그리고 멘토가 되어준 송혜영씨, 안산이주민센터의 김영임씨가 한자리에 모였다. 짧지만 즐거웠던 그녀들의 수다를 들어보았다.



###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래요?

LG이노텍 안산 연구소에서 일하는 송혜영씨의 주말을 설레게 한 이가 있다.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정천기 학생,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다.

**송혜영** 멘토를 하고 싶다고 자원했어요. 그래서 천기를 만나게 됐지요. LG이노텍은 연말에 <산타가 간다>라는 행사를 해요. 산타분장을 하고 안산이주민센터의 아이들을 찾아가 선물도 하고 케이크도 함께 만들면서 지내곤 했어요. 그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처음 만났죠. 천기와의 첫 만남은 사실 아쉬웠어요. 1박2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인데, 주말에 일이 있어서 전체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센터에서 늦게라도 와달라고 하셔서 잠깐 얼굴을 봤죠. 사진으로도 봤지만 직접 만난 천기는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천기** 함께 오래 있지 못해 서운했어요.

**송혜영** 그날 이후 천기와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였어요. 만나면 요즘 연예인 얘기부터 쏟아내요. 사진에 동영상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대화도 잘 통하고요. 짬짬방 간 그날도 그랬어요. 지난 7월쯤, 짬짬방을 가자고 하니 바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죽이 잘 맞아요. 등도 밀어주고, 계란 먹고 식혜 먹고 비빔밥도 먹고 몸무게도 서로 재보면서 말이죠. 나와서 맛집 순례도 했지요. 저도 천기도 먹는 걸 무지 좋아해요.

**도옥매** 지난번 워터파크 갔을 때도 엄청 잘 놀다왔어요.

**김영임** 송혜영 멘토는 에너지가 많아요. 서울랜드 갈 땐 손수 김밥을 싸오실 정도예요. <희망멘토링>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함께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죠. 아이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걸 물어봐주는 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요.



**도옥매** 천기가 멘토님을 만나기 전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도 못 거는 수줍은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천기** 처음에 한국어를 못해서 바보라고 놀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지금도 여전한 건 있지만요.

### ‘안산’ 밖의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천기는 여전히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지만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천기가 얼마나 수다스러워졌는지 알고 있다. 이제 6학년이지만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지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엄마의 통역사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도옥매** 주말에 멘토와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나면 평일에 좀 더 활기차게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와 놀아주기 힘들실텐데 너무 고마워요.

**송혜영** 천기가 공부에 관심이 많아 저의 학창시절을 얘기 해주며 격려를 했지요.

도옥매씨는 천기가 최근 전과목 100점을 받아오고 성격도 활발해진 모습이 마냥 대견하기만 하다. 오늘 처음 만나는 송혜영 멘토에게도 거듭 고맙다는 감사를 표한다. 천기의 장래희망을 던지시 물었다.

**천기(멘토도 함께)** 형사요.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 공부에 남다른 재능이 사물을 추리하는 탐정이나 형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보다. 동생이 없는 송혜영씨와 언니가 멀리 있는 천기는 자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번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송혜영**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러 갈 예정이에요. 천기에게 ‘안산’ 밖의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 천기는 지치고 힘든 직장생활에 활력소예요

조금은 무뎠던 천기는 엄마와는 더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겐 살갑게 대한다. 에너지 많고 애교 많은 멘토 선생님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천기는 어떤 존재일까?



**송혜영** 생각해본 적 있어요. 작년, 올해 직장생활 많이 힘들었거든요. 천기와의 만남은 정말 즐거워요. 천기는 힘들고 지친 직장생활에 활력소예요.

**도옥매** 천기는 나에게 희망입니다. 공부 잘하고 커서 직장 잘 다니고, 한국에서 많은 지원도 받았으니 꼭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김영임** 천기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오는 11월이면 수료식을 갖는 <희망멘토링>. 곧 모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천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송혜영 멘토라면 끝까지 지켜봐 줄 거란 믿음이 든다. 천기도 에너지 많은 멘토와 함께 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화이팅!

# 부산 무지개샘의 재기



암을 이겨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강미경씨

“건강은 어떠세요?”라는 조심스런 질문에, 요즘 살이 많이 붙어 아픈 사람으로는 안 보일 듯싶다고 말한다. 여성 공익활동가들을 위하여 암치료비를 지원하는 <최명숙기금>을 통해 지난 2012년에 항암치료를 받은 강미경씨다.

2011년 유방암 발병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녀는 외국에서 일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부산여성회 회원으로, <모라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의 센터장으로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던 활동가였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엄마들과 함께 나누며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그녀는 1996년 부산여성회 엄마들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내 아이’를 향했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로 커져갔고, 지난 십여 년 동안 나보다는 타인을 돌보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후회되지는 않으셨어요?” 몸이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활동에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으니 가져볼 만한 마



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다. 아마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았더라면 몰랐을 많은 것들에 대한 답과 가치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 오히려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말이다.

투병생활 동안 부산여성회 동료들과 센터의 아이들은 가족만큼이나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부산여성회 동료들은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문병을 왔을 만큼 그녀를 염려했다.

그녀에게 변변한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그녀를 도울 방안을 찾다가 한국여성재단의 <최명숙기금>을 알고 그녀를 지원자로 추천한 것도 바로 부산여성회 동료들이다. 그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강미경씨는 센터의 아이들에게 ‘무지개쌤’이라고 불린다. 투병 중에도 그녀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센터를 찾아갔다. “무지개쌤, 왔어요?” 외치며 삼삼오오 몰려든 아이들은 “무지개쌤, 많이 아파요?”하며 함께 걱정도 해주고, “이거 가발이에요?”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 가발을 살짝 들추어 보여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실 강미경씨를 꼭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 <최명숙기금>을 신청하면서, 그녀가 보내왔던 지원서 맨 하단에는 ‘항암치료 종료 후 완치 판정을 받으면, 회원활동 및 부산여성회 활동가로서 지역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치료 후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올 초부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직 건강이 예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아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오랜만에 나온 무지개쌤에게 “이제 안 아프세요?”, “이건 이제 선생님 머리카락 맞아요?”, “또 언제 와요?”라고 물으며 반겨주었다. 아직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했다고 했다. 동시에 센터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보며, 아직까지 우리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구나, 어떻게 지켜주어야 할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녀는 건강을 얻어 새롭게 활동하는 계획으로, 자신이 사는 북구 지역모임의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열애의 감정을 채 다 풀어놓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듯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그런 마음을 품고 예전보다 더 차분히, 더 긴 호흡으로 활동해나갈 그녀에게, 불꽃처럼 살다 후배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사랑을 남기고 떠난 故 최명숙님께 드리고픈 한마디를 부탁해보았다.

### 故 최명숙선생님께

같은 여성활동가였던 선생님의 이름으로 조성된 기금을 제가 지원받았다는 것이 참 기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마음으로 여성활동가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행복한 오늘을 사는  
민용자씨의 기부이야기



경북궁 근처에 자리한 <청소년도서재단> 사무실엔 벽을 따라 놓인 책장과 칸칸이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포개진 책들이 그득했다. 사재를 털어 책을 구입해 필요한 지방 학교들에 보내기를 23년. 한결같은 나눔에 더해, 올해 8 월에는 여성재단 <고사리손기금>에 기부자로, 또 기부 권유자로 적극 활약한 민용자씨를 만났다.

## 친구가 하자고해서 시작했지

“우리 경기여고 동창생 홈페이지가 있어요. 손주들 사진 올리면서 자랑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며 소식 전하는 곳인데, 이경순(여성재단 이사)씨가 고사리손 기부를 하자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니 한 명 두 명 동창생들이 하겠다고 나섰다. 그녀가 기부를 요청해 이름을 올린 손주들은 열한 명을 넘어서다.

“제일 큰 손자가 열 살이에요. 아직 <고사리손>이 뭔지는 모르겠지. 효민이, 종서, 인성, 민성, 이렇게 네 명의 손자이름으로 했어요. 할머니가 너희들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하니 눈코 뜰새없이 바쁜 의사인 작은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기부를 요청하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할 것 같은데 안하는 사람도 있고 안할 것 같은데 선뜻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기부에 대한 남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었던 건 경기여고 100주년을 맞아 모금 담당을 맡은 그때부터였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모금 담당자로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목표액 1억을 정해서.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부를 권했는데, 평소 사람 대하는 모습을 봐서는 충분히 많이

---

해줄 거야 생각했던 친구가 기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라며 냉정하게 거절했지요. 대신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연락해줘서 고맙다던 친구, 우리 와이프는 이 세상에 없지만 아내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었던 남편, 딸도 동문이라고 함께 기부한 모녀 등등.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기부를 하더라구요.”

### 모두에게 기부를 요청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부해 준 이들에게 빠뜨리지 말고 꼭 챙기라고 당부한 것도 있다. “기부를 하겠다고 답이 오면 꼭 감사인사를 보내야 해요. 쪽지로나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권할 땐 언제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네 하면 안돼요. 그리고 모금한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해. 자기는 쏘옥 빠지고 해줄래? 그러면 신뢰가 안 생기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들어도 들어도 올바른 그녀의 모금의 정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년 동안 여고 100주년 기념 모금을 할 때 친구들에게 신망을 얻은 것이 고사리손 기부를 요청할 때 도움이 되었다. 멀리 독일에서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오는 후배에게도, 손주가 많아 고민하는 친구에게 “그럼 친손주 이름으로만 해” 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기부를 하고 싶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 부담도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아이디어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노하우도 경이여고 모금 때 얻은 아이디어다. “우린 그때 한사람 당 목표를 1백만 원으로 정하고 우리 기수가 1억을 모금하기로 결정했어요. 백 명을 모아야 하는 건데, 한 기수가 4백명이 졸업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기부를 요청받는 사람은 어려워하더라구요. 그래서 총액을 분할해서 기부를 받았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20회 분할하니까 100주년 되는 해에 딱 100만 원이 되었어요.”

### 평생 전업주부만 할 줄 알았지요

대학을 졸업한 후 띠 동갑 남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둔 민용자씨는 막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이 꿈이었던 남편 이성원씨가 1990년 <청소년도서재단>을 만들면서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던 부부는 이 일을 23년째 계속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세대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 책보내기운동을 해왔어요. 책방과 연계하거나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책을 사서 보내줍니다.”

이 일을 하는 두 분의 일상은 무척 바쁘다. 좀 더 소외된 지역으로,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책 목록을 살피고, 책을 직접 사서 보내고, 가서 책이 잘 쓰이는지 살핀다. 아이들이 직접 읽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학급문고로, 군대 내무반에 군인들이 하루일과를 마치고 읽을 수 있게 한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15만권 정도를 지금까지 보내며 고마움이 담긴 편지 덕분에 행복을 느낀다.

처음에는 어디 재고 정리하는 곳에서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사연, 하도 책을 안 읽어서 선생님이 도서반장을 시켜 준 덕분에 책을 첫 장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는 사연, 우리 동네에 책방은 없고 노래방만 우후죽순 생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나중에 이사장님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 외박나간 군인이 돌아올 때 통닭이 아닌 책을

사들고 들어온다는 사연 등 책을 통해 변화해간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을 보내고 답례로 받은 초정약수 2통,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 직접 짠 참기름 선물 등은 책 한권으로 묶어도 좋을 만큼 읽을거리가 된다.

책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사연은 또 있다. 부부는 매월 두 번씩 대학생들을 만나는 멘토활동도 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광병선)의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다. 다 예쁘고 활발한데 얘기를 나눴으면 엄마가 부재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슬픈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매년 열 명의 학생들을 만나 공연도 보고 책을 읽고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에게 상담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는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기도 한다.

### 우리 손주들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칭찬 많이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남편과 함께 이일을 하면서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민용자씨. 내일은 경기여고 동창생들의 <산사랑> 등 산모임이 있는 날이다. “한 달 중 저 양반 모임이 열한 개, 나는 여덟 개나 되더라고요.” 전업주부로만 살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고, 그녀는 아주 즐겁게 바쁘다. 내일 있을 산사랑모임은 20년이나 된 장수 동호회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30분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친목을 다진 게 20년이 됐어요. 늘 전날, 내일 만나! 문자를 보내줘요. 오전에 산에 오르고 내려와 점심을 먹고 이경순씨가 추천해준 영화를 보러갑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또 함께 감상도 얘기하고... 1년이 52주인데, 작년에 우리가 본 영화만 41편이에요. 홈페이지에 ‘세계 영화 감

독님들 분발하세요, 우리 수준에 맞추시려면!’ 장난스런 멘트도 남기죠.” 그렇게 친구들과 오후를 보내고 서둘러 손주들을 챙겨 집에 데려다주면 하루해가 진다.

그녀가 엄마였을 때, 자식들이 어려운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자도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딸들을 다독였다. 자신과 꼭 닮은 작은 딸, 엄마의 소원대로 약사 자격증을 땄지만 세익스피어와 성룡을 좋아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작가의 길을 간 첫째 딸. 그리고 어느새 한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의 아이들 수학공부를 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튼튼하고 경제도 잘 풀리기를,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 “남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칭찬 많이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독이면서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소망이다.

민용자씨는 이제 저녁차릴 걱정없이 남편과 맛집을 찾고, 휴대폰도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낸다.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한국여성재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모금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라고 격려해주었다. 늦은 저녁, 그녀가 잊고 있던 기부 에피소드가 생각났다면 문자를 보내왔다. 결혼도 안한 동창 흥변호사가 조카 2명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말이다. 결혼을 안했으니 해당사항이 없지 않냐고 했지만, 할머니 마음은 똑같은 거라며 동참했다. 곁에 있는 것처럼 호호 미소짓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마냥 기분이 좋다. 

한국여성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자 한국사회 여성계의 대표적인 리더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살다 지난 5월 17일에 타계하신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편집자주

## 희망의 등대, 박영숙 선생님을 기리며

이선종 교무 은덕문화원 원장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임을 알지만 선생님과 이별은 한국사회와 우리 여성계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과 함께 한 세월의 무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선생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오신 우리 역사의 산증인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의롭고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일하신 지혜로운 여성이셨고,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시대의 대모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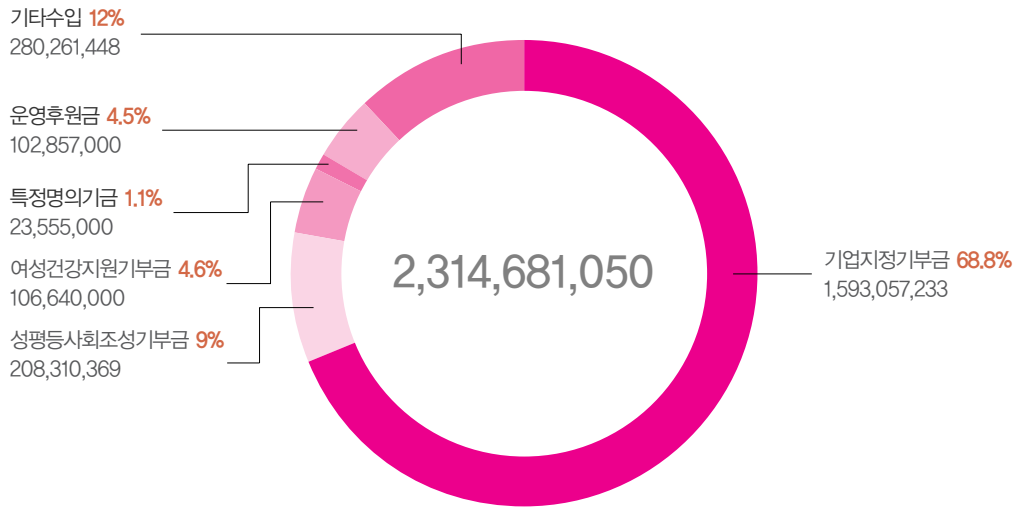
새로운 한국사회를 갈망하는 새 시대의 물결을 타고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 사랑의 친구들 총재,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장학재단 '살림이' 이사장,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등 삶의 현장에서 공의(共議)의 사표가 되어 주인으로 사셨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하며 열린 공간에서 서로를 소통시키는 최전선의 지도자셨습니다. '생명'과 '평화', 그리고 '여성'이라는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오늘의 희망을 키우기까지는 선생님의 희생과 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도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더 나아가 함께 이룩해야 할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신 행동하는 양심이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협력하는 여성의 지혜를 모아주셨고, 불의와 독재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리더로서 일생을 현역으로 살다 가신 우리 시대의 공인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다시 오시는 생(生)에는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소망했던 통일한국시대를 열고, 평등세계를 건설하며 대한민국을 세계의 모범국가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선생님! 그립습니다.

수입 • 기간 : 2013. 1. 1 ~ 2013. 8. 31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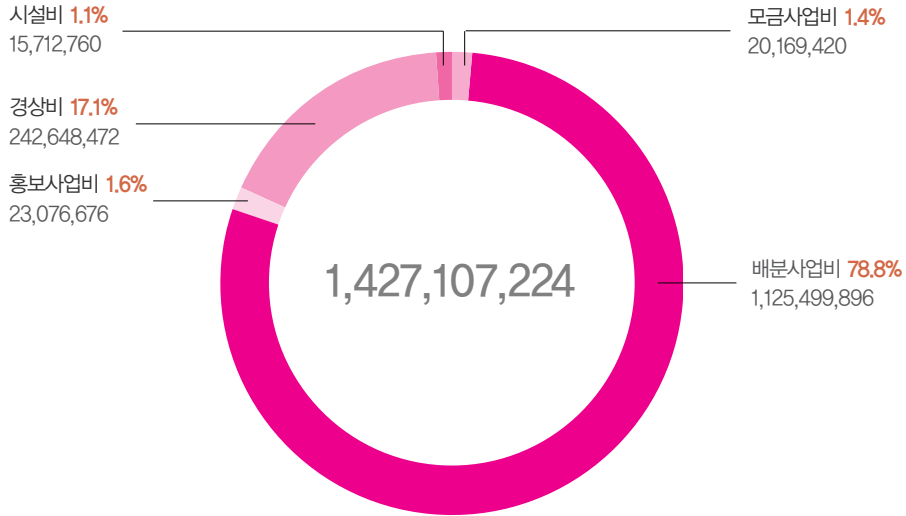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금 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93,057,233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안전, 안심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08,310,369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6,640,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애경산업기금, 도호기금 등	23,555,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2,857,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 SOS 상환기금 등	280,261,448
<b>총 수 입</b>		<b>2,314,681,050</b>



# 2013년 1-8월 재단 수입 및 지출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출 • 기간 : 2013. 1. 1 ~ 2013. 8. 3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20,169,420
배분사업비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사리손지원사업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자녀, '엄마에게 희망을' 여성활동가건강지원사업 • 다문화이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프로젝트 (우정사업본부) • 희망날개 - 다문화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불빛장학금(달성매매여성장학사업) • 싱글맘 홀로서기 지원사업(애경PLAZA) • 희망멘토링-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LG이노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시설개선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 - 짧은여행 · 긴호흡 (교보생명) • 기업지정사업 등 4.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우리동네사업 (한화생명보험)	1,125,499,896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23,076,676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42,648,472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5,712,760
	<b>총 지 출</b>	<b>1,427,107,224</b>

# 2013년 7-8월 개인기부자 명단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금강데코 Aimee Aksel Chung-Yul Koss  
 Alexander Aycock Ange Annabelle Taeja Koss  
 Celeste Doebele Eleanor(에진) Jemma(희진) Noelle  
 Huffman Jeremy(인호) Julian Aycock Keira(희영)  
 Lee Huffman Mina Doebele 강경림 강경희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덕희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문영 감미라 감미정 감미주 감은라 강범희 강보승  
 강보은 강석기 강석영(Maja Kang) 강석준(Timo Kang)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수자 강승아 강승희 강신혜  
 강양숙 강연조 강원화 강유나 강은나 강인수 강제훈  
 강중남 강중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진애 강태영  
 강태호 강현상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선 강혜숙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강준호 고경표 고경희 고명화  
 고명희 고보성 고복신 고영아 고영주 고유지 고은정  
 고정원 고주형 고현숙 고현칠 고호근 고희경 고희숙  
 공명숙 공선영 공옥분 공인자 객선명 객영선 객옥자  
 객용국 객은숙 객지혜 객희환 구민수 구봉경 구상권  
 구영남 구영만 구영선 구옥순 구은경 구인선 구지민  
 구지용 구재용 구준차 구중본 구태희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석 권난실  
 권민경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민 권영선 권영순 권영애  
 권영숙 권오일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정 권태희 권택학 권혜경 권혜영 권혜영  
 권희숙 권경림 권갑순 권강식 김건우 김경구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성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웅 김광이 김광자 김광재 김광하 김광하 김국찬  
 김규민 김규식 김규태 김근애 김근애 김근래 김근례  
 김기상 김기선 김기선 김기선 김기숙 김길아 김나리 김나영  
 김남욱 김남주 김다영 김대규 김대규 김대수 김대영  
 김덕선 김덕식 김덕일 김덕임 김도경 김도수 김도연  
 (Hillary) 김도현 김동섭 김동애 김동천 김동호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민한 김매화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옥 김명희 김명일 김명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림 김미봉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희 김병관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영 김봉일 김분기 김상근 김상본  
 김상순 김상숙 김상진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상기  
 김서현 김석준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영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진 김성호 김세화 김세희  
 김소안(Claire) 김소연 김소현 김수경 김수림(Lauren)  
 김수미 김수미 김수열 김수영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숙성 김숙성 김숙성

김숙연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미 김순복 김순애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영  
 김순자 김승구 김승철 김사진 김신원 김실환 김아라  
 김애숙 김양영희 김양자 김양희 김연례 김연미 김연재  
 김연화 김연희 김영규 김영균 김영길 김영남 김영란  
 김영래 김영미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아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채 김영화 김영화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옥목  
 김옥분 김옥은 김옥천 김 용 김용관 김용우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유미 김유미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선 김윤수 김윤정 김윤재 김윤주 김윤주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은경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실 김은아 김은아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근 김익자 김인경 김인선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자 김인춘 김지현  
 김진디 김장림 김장희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현 김재춘 김재현 김재현 김점옥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지미 김지미 김지민 김정선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순 김정순 김정애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임 김정자 김정자 김정현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중덕 김중서 김중순  
 김중일 김중주 김중철 김중화 김중희 김주미 김주영  
 김주영 김주원 김주원 김주현 김주현 김준수 김준승  
 김준우 김준희 김지란 김지서 김지수 김지안 김지영  
 김지현 김지는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지호 김진구  
 김진근 김진영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후 김진희  
 김진일 김진주 김진태 김진표 김진환 김진후 김진희  
 김진희 김지순 김창규 김창근 김창원 김철순 김철홍  
 김형희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연  
 김태욱 김태우 김태지 신재 김태진 김태환 김택수 김하영  
 김학영 김학복 김해조 김행욱 김행인 김향미 김현관  
 김 현/김민정 김현경 김현규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우 김현우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성 김형재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정 김호진 김홍기  
 김홍식 김홍자 김효선 김효순 김희경 김희경 김희수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나동순 나문용 나성주 나성희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숙영 남신석 남윤인순  
 남정민 남진숙 노무현 노선숙 노영숙 노옥련 노윤범  
 노윤숙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노희정

도서관친구를 도이현 도현철 동고은 두석호

루카 주-투스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혜 류재욱  
 류춘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정은 명옥희 명진숙 모은영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숙 문경호 문금주 문길화 문명숙  
 문명옥 문미란 문미애 문보경 문봉순 문새미 문성원  
 문숙남 문순일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인숙  
 문재용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재희 문희영  
 민가영 민경주 민승례 민옥기 민용자 민형태 민희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후 박규리 박규선 박근영 박근희  
 박규래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선 박다운 박대근  
 박동렬 박동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라 박미란 박미례  
 박미향 박미희 박민숙 박민영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범석 박병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봉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선인 박성근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현 박수진 박수향 박수희  
 박순공 박순규 박순옥 박순균 박순일 박순진 박순호  
 박신규 박신연숙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숙 박영실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순  
 박옥필 박용민 박용분 박용삼 박용선 박원희 박유미  
 박은숙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이자 박이례  
 박이순 박익수 박인희 박재서 박재서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미 박정미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자 박정진 박정혜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종남 박종순 박종호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준호 박종석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 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찬철 박재용  
 박춘애 박창순 박한솔 박 현 박현숙 박현선 박현자  
 박현정 박현정 박현희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화순 박효숙 박홍철 박홍희  
 박희선 박희숙 박희옥 반정애 방선주 방성희 배경수  
 배선희 배소정 배수경 배숙일 배영숙 배정미 배정민  
 배종학 배현영 백경남 백경원 백경자 백경희 백부서  
 백선희 백순애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호 백인선  
 백형철 백화선 변영선 변영희 변용태 변형석 변화순  
 복진수 봉성근

상지이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덕순 서동규 서미석  
 서민정 서선숙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영 석미화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길자 선은주 선진규 설경중 설영숙 성경남  
 성경애 성고운 성기화 성명중 성용철 성인선 성정현  
 성지희 성현녀 성형주 소옥녀 소진선 소희로자 손낙희  
 손만순 손병준 손상호 손석철 손순연 손규주 손영숙  
 손영숙 손은주 손재광 손정길 손현숙 손현숙 손경옥  
 송경희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미령 송미경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희 송세령 송수자 송영선 송영숙  
 송영선 송영호 송예숙 송윤희 송은영 송은영 송은우  
 송인봉 송재용 송정아 송정애 송주연 송주연 송한현  
 송현주 송현진 송혜영 송희숙 손수정 신다은 신대환  
 신동석 신동철 신동화 신명순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근 신봉남 신선미 신성태 신소영 신소영 신선숙  
 신영미 신영희 신용신 신용현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장애 신지원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춘화 신현인  
 신현정 신현철 신혜숙 신호상 신호성 신화숙 신희숙  
 심경자 심명운 심복길 심숙경 심영애 심영희 심은주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춘숙 심현숙 심형은  
 심재희 심효연

아라이유카 안경자 안기선 안기현 안다은 안덕남 안명순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병철 안봉순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선희 안성희 안세준 안소연 안숙경 안소화  
 안승용 안승욱 안예지 안은성 안재준 안재철 안중희  
 안준호 안지현 안지희 안태근 안필자 안희희 안희희  
 양근소 양도숙 양미초 양미현 양사랑 양세경 양오식  
 양은석 양아숙 양일순 양재섭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혜선 양후진 양희영 양희은 어현경 엄선애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엄미숙 여선숙 여성문(이연구(주)사)  
 여진경 연미자 연은희 연미화 연민순 예은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성순 오명옥 오미진 오미향 오상봉  
 오상호 오성규 오세홍 오수원 오수정 오숙환 오승용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경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지은 오진홍 오춘희  
 오현우 오형원 오희주 옥지영 옥천수 왕성욱 왕정순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울산여성지원회 원경숙 원예복  
 원예담 원옥금 원옥걸 원유정 원혜숙 위소희 유경도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난희 유동훈 유명준 유무선  
 유미라 유서연 유선기 유선희 유숙자 유소복 유승완  
 유승희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윤임 유은자 유은주  
 유은총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용 유정미 유정신  
 유정자 유정희 유정희 유혜미 유현정 유혜정 유호근  
 유화숙 유화영 유희정 유희정 육성희 육은정 윤경숙  
 윤계원 윤귀분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병환 윤비연  
 윤서연 윤서영 윤석남 윤선정 윤 숙 윤순규 윤순남  
 윤영경 윤영미 윤영배 윤영옥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재환 윤정보 윤정분 윤정자  
 윤정화 윤정희 윤정희 윤창희 윤채영 윤혜영 윤중성  
 이가운 이기춘 이기희 이강선 이강현 이근우 이근정  
 이경미 이경선 이경신 이경애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연 이규백 이규선 이근재 이근주 이근현  
 이금녀 이금복 이금순 이금재 이기선 이기연 이나라  
 이남희 이덕남 이덕민 이덕중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순 이명옥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숙 이미숙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홍 이미자 이미정 이미정 이민지  
 이미향 이미향 이 민 이민경 이범기 이범희 이범관  
 이병도 이보희 이복순 이복희 이봉찬 이상근 이상미  
 이상민 이상엽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상후 이서연  
 이서연 이 선 이선례 이선미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선필 이선희 이선희 이상규  
 이상영 이상우 이상은 이상일 이상자 이상희 이서희  
 이소영 이소희 이소희 이소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옥 이수미 이수민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현 이수희 이숙민 이숙향 이숙희  
 이수덕 이순오 이순옥 이순임 이순현 이순희 이순희  
 이숙수 이숙자 이숙진 이숙현 이숙현 이숙희 이숙희  
 이시연 이시옥 이쌍선 이이나 이애란 이양주 이연주  
 이연옥 이연미 이연정 이연제 이연희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수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천 이영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옥경 이옥희 이옥자 이옥희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윤찬 이원대  
 이원식 이원우 이우경 이우림 이우진 이우경 이우성  
 이윤열 이윤희 이윤경 이은주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수 이이녀 이의영 이의환 이익주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화  
 이재영 이재경 이재민 이재숙 이재순 이재욱 이재원  
 이재준 이재현 이점무 이점순 이점민 이점숙 이점숙  
 이정옥 이정옥 이정원 이정원 이정자 이정자 이정환  
 이재규 이재영 이종남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해  
 이종훈 이종홍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준숙 이지락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오 이지유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진영 이찬근 이창하 이철수 이철순 이창자 이춘아  
 이치우 이태용 스테파노 이태원 이태원 이태화 이태호  
 이피라 이필영 이하린 이현걸 이현선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재 이현준 이현지 이현진  
 이형근 이혜경 이혜경 이혜련 이혜숙 이혜숙 이혜영  
 이해희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선 이호태 이홍제  
 이환국 이희경 이희영 이효민 이효숙 이효형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이희정 임경옥 임경아 임경옥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덕희 임선희 임선희 임성무/김말순 임성원 임성택  
 임수연 임수진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영미 임영숙  
 임영주 임용태 임인숙 임정규 임정혜 임진식 임진철  
 임재홍/대왕철강 임춘근 임현숙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홍석

지속에 장경림 장경혜 장금옥 장기정 장길용 장남중  
 장덕현 장동애 장명련 장명숙 장명숙 장미정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현 장순연 장순화 장순현 장애희  
 장영숙 장영순 장영미 장영서 장영아 장영윤 장영임  
 장영혜 장옥형 장은선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재옥 장재경 장재혜 장주경 장준하(Aidan) 장철경  
 장희연 장희원 재단법인 임당장학문화재단 전남미 전영남  
 전미경 전미영 전민경 전부숙 전수경 전수민 전순옥  
 전순천 전순형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영희 전옥순  
 전용수 전원수 전은서 전지에 전진숙 전진영 전태자  
 전현정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삼 정경수 정경옥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길석 정길식 정나일선 정다운  
 정다정 정덕희 정명숙 정미경 정미도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수 정민식 정민자 정삼여  
 정상민(조성은) 정상철 정사윤 정선미 정선아 정선영  
 정선자 정성분 정성태 정성화 정소영 정수연 정숙윤  
 정승희 정진희 정아린 정연필 정영숙 정영애 정영우  
 정영지 정영환 정옥영 정용주 정우식 정원영 정원운  
 정원희 정유연 정윤주 정윤현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희 정정희  
 정지용 정지윤 정진옥 정찬숙 정창남 정창자 정태호  
 정하자 정 현 정현미 정현미 정현아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희경 정희영 정희철 제송옥 조경미  
 조경자 조경희 조광희 조광중 조관중 조규원 조기환  
 조동환 조영숙 조 미 조미경 조미래 조미영 조미진  
 조배원 조범신 조복희 조상래 조상진 조서희 조성덕  
 조성만 조성민 조성환 조성희 조세화 조수용 조승호  
 조승희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숙 조영순 조영한  
 조영혜 조옥라 조옥화 조윤세 조윤희 조영희 조은영  
 조정란 조정숙 조정연 조정현 조정현 조정희  
 조주현 조주혜 조진희 조진희 조진희 조판용 조향례  
 조해진 조혁중 조현덕 조현주 조 형 조혜련 조혜수  
 조호정 조화자 조홍식 조희연 주경은 주명희 주미영  
 주석중 주선숙 주애애 주 영 주향숙 지상규 지숙자

차경선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옥 차철용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지연 채진식 찬병석  
 천소연 천영희 천정윤 천희란 최경숙 최경숙 최경숙  
 최경숙 최경숙 최경애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 최길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막래 최명진 최문영  
 최문희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봉용 최봉희 최보숙  
 최석준 최선아 최선아 최선희 최성철 최승희 최수경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애경  
 최양호 최영숙 최영옥 최옥숙 최은정 최원식 최유경  
 최유진 최유진 최유진 최유미 최윤희 최은정 최은정  
 최은주 최은주 최은희 최 인 최인숙 최인기 최인혁  
 최인형 최재성 최재숙 최재식 최정수 최정아 최진희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하 최정악 최준서 최진희  
 최철만 최태진 최하늘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주  
 최현진 최현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욱 최혜경 최호식  
 최화숙 최화원 최효진 최희경 최희화 추교훈 추연식

탁유리 탁은숙 탁중윤

편민자 평혜연 표근해/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두련 하만호 하순원 하순원 하영희 하윤숙  
 하지은 하태선 하원자 하현정 한명식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병숙 한수옥 한승미 한순호  
 한애자 한애애 한우련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진희  
 한정옥 한정의 한정현 한진희 한준화 한혜경 한혜준  
 함윤경 함정순 한남선 허명지 허명하 허선기 허성우  
 허소연 허순자 허신하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은실 허정옥 허혜영 허효영 현선서 현준식  
 호옥희 홍경숙 홍근혜 홍근택 홍기태 홍미경 홍미선  
 홍미정 홍상옥 홍상주 홍서보 홍선영 홍성은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영주 홍영애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정인 홍진선 홍찬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규정 황나라 황미영  
 황미향 황민숙 황병덕 황석민 황선구 황성락 황순자  
 황시연 황예미 황은주 황은진 황인성 황인성 황인자  
 황인희 황정석 황정혜 황주연 황진태 황현우 황현준  
 희광양상

• 2013년 100인 기부발레이의 일시 기부자님들은 지난 소식지에서 소개하였으므로 본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2013년도 2기 <이화-유한김벌리> NGO여성활동가리더십 교육과정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9월 25일,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차세대리더 양성을 지원하는 <이화-유한김벌리 NGO여성활동가리더십교육과정>의 2013년도 2기 장학증서 전달식이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열렸다.

임영화 유한김벌리 부사장은 “본 과정에서의 배움이 사회발전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장학생인 변경미(너머서) 활동가는 “온 몸과 마음을 부딪히며 경험하고 성장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총 30명의 여성활동가는 앞으로 6주간, 총 10차에 걸친 강의 및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2013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프로젝트 중간 현장방문 및 상반기 실적보고회 개최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하는 <2013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프로젝트>가 서울, 경기 안산, 전북 군산, 전남 여수, 이상 4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직업훈련, 다문화 취업지원 성공 모델 개발을 위한 취업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재무관리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경제교육을 열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여성재단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이주여성들과 파트너단체 활동가가

함께 성공적인 자립지원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8월 20일 우정사업본부가 개최한 상반기 실적보고회에서는 이주여성 100명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활경제교육의 성과와 적합한 직종 발굴 성과가 발표됐다. 앞으로 직업훈련을 마친 후 직업상담사, 관광통역안내사,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시험의 합격과 성공적인 취업연계에 대한 기대감도 느낄 수 있었다.

## 다문화여성커뮤니티지원 '2013 희망날개' 드디어 날다!



9월 24일, 다문화 교류 및 문화다양성 존중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2013 희망날개> 리더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커뮤니티 리더그룹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역량강화교육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공연 활동을 하는 <무아논라>, <천사드림>, 재한베트남문화 <장검다리>, <EMBRACE>, <톨가>, <PEARL OF THE ORIENT>가 있으며, 음식을 주제로 하는 <찌엵>, <말하는 도시락>, <이주여성요리봉사단>이 있다. 그 외 <이주여성문화나눔봉사단>, <명절문화알리미>, <레인보우퍼포먼스>, <희망날개합창단>, <행복메아리>, <지평선어울림합창단>, <인타클럽>, <우리는하나 건강나눔스포츠>, <미디어자조모임>, <다정공감> 총 19개의 커뮤니티가 연습도 하고 일상도 나누며 우리사회 다문화 생산자이자 전달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다문화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사회를 기대해 본다.

## 멘토와 함께 떠나는 양육미혼모 여행지원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



지난 9월 5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미혼모가족들의 여행프로젝트에 참가할 팀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양육미혼모 세 가족 이상이 한 팀이 되어 멘토와 함께 여행하는 이번 사업에 인동꽃 향기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트라이앵글의 <일타삼피>, 엄마가시고기의 <나와 세상 다시보기!>, 아기와 따뜻한 맘의 <멘토와 함께 하는 여행>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팀들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 해소, 양육미혼모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해 패션의류업체 <(주)혜공>의故 도향호 수석디자이너 추모문집 수익금으로 조성된 <도호기금>에서 지원한다.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 가족에게 여행을 통한 임파워링 및 가족애 증진을 지원하며 9월 23일 선정된 팀 대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 여성신문 김효선 사장,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김효선(여성신문사 사장) 기획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8월 30일 기획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효선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여성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모금 및 홍보활동을 쇄신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경순 전 위원장은 매년 여성희망캠페인 '100인 기부 릴레이'에 지인들을 동참시키며 완주하였고, 특히 올해는 고교 동창들에게 <고사리손기금>을 소개하고 후원을 조직해온 열정적 모금가이기도 하다. 이경순 전 위원장과 김효선 신임 위원장 모두 한국여성재단의 행동하는 이사로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이자스민 의원실 <국회일터나눔> 현판전달식 개최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9월 27일 이자스민 의원실에 방문하여 국회일터나눔 현판을 전달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은 이미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일터나눔에 참여하였으나, 그간 국회의원회관 공사로 의원실이 안정되지 않아 현판 부착이 지연되었다. 평소 여성재단의 다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자스민 의원은 현판 전달식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재단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생일선물 대신 나눔을 선택한 준서와 가흔이



8월 12일 준서의 어머니 최형숙씨는 돼지저금통 2개를 들고 여성재단을 방문했다. 저금통에는 준서가 직접 썼는지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장난감 살 용돈', '생일파티에 쓸 용돈' 이라고 적혀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난감 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나눔을 선택한 준서의 이야기가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지자 곳곳에서 저금통 기부에 관심을 나타냈다. 교회 아이들과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오진방씨에 이어, 울산에 사는 가흔이도 9월 14일 생일을 기념해 저금통을 여성재단에 보내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 가흔이 엄마 감은남씨는 “기부금이 적어 부끄러웠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아이로 컸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2013 건강지원사업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 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매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하며, 건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익월 초순경 선정 발표된다.** 개인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를 통해 2007년에 시작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 2012년 60명으로 지난 6년간 총 250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했다.

# 우리아이 생일날, 장난감 대신 나눔을 선물하세요!

고사리손 기부자 준서는

이번 생일에 친구들과 맛난 것을 먹고 장난감을 사고 싶었나봅니다.

돼지저금통에 정성스레

'장난감 살 용돈', '생일파티에 쓸 용돈' 을 적어놓았네요.

하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장난감 대신 나눔을 선택한 준서

아홉 살 준서의 생일인 8월 12일,

준서의 어머니는 무거운 돼지저금통 2개를 들고 재단에 오셨습니다.

준서를 비롯한 고사리손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필리핀 보홀섬에 사는 소녀 인다이는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 고사리손기금이란?

고사리손기금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아시아의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래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부캠페인입니다.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만듭니다

고사리손기금은 아동·청소년의 기부금과 이를 격려하는 어른들의 기부금을 모아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1~2013년 <고사리손기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팔 박타푸르(Bhaktapur)지역의 사라스와티(Saraswoti)초등학교 학생들(2011~2012)과 필리핀 보홀긴급구조센터(BCIC)의 소녀들(2013)에게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와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물품(교복, 가방, 물병, 체육복, 급식 및 교통비 등)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 희망을 만드는 만만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만만클럽은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정기기부자 1만명의 회원클럽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전·안심사회만들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 활동 지원에 쓰여집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요?  
정말로  
안심이라고요?

- '36초'마다 강력범죄 발생
- 성폭력은 '28.8분'마다 발생
- 성폭력사범이 3년 만에 '33%' 급증
- 아동성폭력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5,000건당 1명

출처 :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1 경찰청 통계

아픔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 만만클럽,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 우리의 기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의 힘

Hope-Livelihood	Hope-Campaign	Hope-Education
폭력피해 생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안전·안심사회에 대한 국민감수성 제고 캠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와 확산



## 희망을 기부하는 당신을 만만클럽에 초대합니다

참여방법: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정기기부 신청→기부희망분야로 '만만클럽' 선택
2. 전 화 : 02-336-6463 (기획홍보팀)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3. 우 편 :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서 재단으로 보내주세요
4.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
5. 계 좌 : 농협 1279-01-000772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국민 079-25-0041-019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문의 :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 02-336-6463 FAX : 02-336-6459